

▶ ▶ 옮긴이의 말

마이크로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API의 역할이 중요해졌고,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API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졌다. FastAPI는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프레임워크다. FastAPI를 사용하면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API를 개발할 수 있으며 학습 난이도 또한 높지 않아 도입하기 쉽다.

이 책은 FastAPI 안내서로,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데이터베이스 연동 방법과 인증까지 필수적인 웹 API 개발 요소를 모두 다룬다.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NoSQL(몽고DB)도 함께 다루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.

후반부에서는 간단하게나마 도커를 사용하는 방법도 소개한다. 경량 가상화 기술인 도커를 잘 사용하면 자신이 개발한 API를 손쉽게 다양한 환경에 배포하고 이식할 수 있다.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지원하므로 자신이 만든 컨테이너를 실제 클라우드에 배포해서 테스트해 보는 것도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다.

개인적으로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직접 구축하는 편인데, 이때 FastAPI 같은 프레임워크가 큰 도움이 된다. C#이나 자바를 사용해 API를 만들려면 쉬운 기능임에도 각종 설정을 비롯하여 작성해야 할 코드의 양이 많아서 시작도 하기 전에 진이 빠지곤 한다.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팀원들을 설득하여 FastAPI를 사용해보려고 한다.

이 책을 번역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. 번역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효율적인 API 개발 프레임워크가 있는지 몰랐을 것이고 여전히 기존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을테니 말이다.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FastAPI라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기술을 경험해보기 바란다.

김완섭